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의 조형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Expression in the Exhibition Spaces of the Jewish Museums

Author 서수경 Suh, Swoo Kyung /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Abstract Today, museums are designed with specific purposes with themes to raise issues based on themes, history, culture or other special focuses. Among many of these thematic museums, Jewish museums are built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let the future generations know the history and dark past memory of the Jewish people. Accordingly, the aim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sions of the museum architecture of Jewish museums done by various architects to help visitors empathize the dark period of the Jews during the holocaust. This particular study will be focused on analyzing 7 museums under the theme of holocaust and Jewish people's life affected because of the tragic event. Spatial organization, exhibition space composition, exhibition techniques such as the exhibition storytelling or scenario and natural light distribution will be analyzed to find expressional characters of Jewish museum's design and how the design form strengthen the museum's purpose. To achieve the aim of the study, target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regarding the design approach are discussed in chapter 2,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are analyzed and synthesized in chapter 3, and finally the conclusion in chapter 4. The study found, that distinctive characters of spatial expression have direct impact on visitor's understanding of the museum purpose and it helps viewers to empathize and to be educated about the situation. Well designed architectural form, spatial organization, choice of materials and colors as well as story telling techniques of the museum will solidify the meaning of the exhibitions inside. Results found in the study will be the guidance for future study on thematic museum planning.

Keywords 유대인 또는 홀로코스트뮤지엄, 전시공간, 조형적 표현특성
Jewish or Holocaust Museums, Exhibition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의의

오늘날 뮤지엄¹⁾은 그 고유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의한 존재성을 넘어, 도시의 상징·문화의 중심·체험교육의 장으로써,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건립되는 뮤지엄들 중에는 종류에 따라 크게 미술계·역사계·자연과학계 뮤지엄으로 분류²⁾되지만, 인간중심을 다루는 인문학계 뮤지엄은 주로 고고·역사·민속·기념관의 전시내용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의 뮤지엄 중 특히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거의 6백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되었던 상황, 즉, '유대인'(Jewish) 또는 '홀로코스트'(Holocaust)³⁾라는 특정주제로 유대인의 역사와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을 후대에 알리고자 한 유대인 뮤지엄들이 유명 건축가들에 의하여 세계 곳곳에 건립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뮤지엄의 경향이 단순히 전시, 보존, 연구기능 뿐 아니라 일반인이 전시의 목적을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⁴⁾ 기능을 갖춘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이 확대 되는 상황이기에, 유대인들의 역사와 삶을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 이외에 공간의 특화된 조형성 등을 통해 색다르게 체험되고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진행되었음.

1) 뮤지엄(museum)이란 역사적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
2) 新井重三, 博物館學講座 1권, 雄山閣, 1978, pp.121-162
3) 홀로코스트 (Holocaust)란 포로수용소 내 '대학살'의 고유명사
4) 이성훈, 공간구성에 따른 뮤지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75호, 2009:08

기억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뮤지엄 건축 중 특히 유대인들의 경험과 역사 등이 전시공간의 조형적 특성에 잘 들어난 전시형식과 스토리텔링이나 시나리오 등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관람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의 내용을 체험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유대인 뮤지엄의 전시공간구성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고, 그 특성을 종합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시공간구성 특성을 종합한 착안점은 주제성(Thematic) 경향의 뮤지엄을 디자인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은 2장에서 조형적 접근에 대한 고찰과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의 각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특성의 핵심을 얻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참고문헌 조사를 통해 유대인 관련 전시내용을 주제로 하고 공간 조형성이 특화된 유대인 관련 뮤지엄을 대상으로 전시공간의 조형적 표현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실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뮤지엄 별 건립배경·건축개요·전시공간 구성특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성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종합하고 이후 특화된 주제의 조형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전시공간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착안점을 찾고자 한다.

2. 조형적 접근에 대한 고찰과 분석대상 뮤지엄 선정

2.1. 조형적 접근에 대한 고찰

어원적으로 조형성(造形性)이란 ‘조형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고, 조형적(造型的)이란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건축은 과학과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예술이지만, 특히 다른 조형예술(조각이나 공예 등)과 다른 점은 ‘내부 공간’이 있다는 점과 기능을 만족할 ‘구조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뮤지엄 건축에서의 주요 내부공간인 전시공간은 조형예술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디자인 되어야 관람객에게 깊은 감흥을 줄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의 구겐하임 뮤지엄(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43-59)은 나선형의 기하학적인 내부공간이 우리들에게 조형적 감흥을 주는 동시에 하나

의 연속성 있는 공간으로 전시동선을 연결시킨 점에서 20세기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시대를 초월한 형태미가 내부에 전시된 현대미술과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뮤지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한다. 미스(Mies van der Rohe, 1886-1969)가 그의 말년에 대표작으로 남긴 독일 베를린의 신 국립미술관(Die Neue National Galerie, Berlin, 1962-68)은 어떤 전시도 수용 가능한 개방된 열린 박스 형식, 즉 무주공간(無柱空間)으로 설계되어 전시공간의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한다. 게리(Frank O. Gehry, 1929-)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Guggenheim Museum Bilbao, Spain, 1991-97)은 빌바오시의 역사와 형상을 이미지 화 함으로서 방문객들이 더욱 오랫동안 뮤지엄의 조형적 형태와 도시를 연계시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특화된 조형성에 힘입어 빌바오 구겐하임은 도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로 세계 문화관광 0순위에 올라 많은 도시에 교훈을 주었다.⁵⁾

산업디자인에서부터 게임디자인 분야에서까지 조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분야에서는 더욱 활발한 조형적 접근을 통한 공간구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으며, 특히 문화와 체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뮤지엄건축 전시공간의 올바른 설계방법론을 위하여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2.2. 분석대상 뮤지엄 선정

분석대상 뮤지엄은 유대인 또는 홀로코스트의 전시내용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 뮤지엄만으로 국가별로 선정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유대인 뮤지엄

국가별	코드	분석대상 뮤지엄, 도시명, 건립년도, 건축가(생년)
프랑스	FR-01	Mémorial du Martyr Juif Inconnu, Paris/ 파리 무명유대인 학살기념관, 1956, Perritz & Gobberg
	FR-02	Mémorial de la Déportation, Paris/ 파리 재발 유대인 학살기념관, 1962, Georges-Henri Pingusson
독일	GM-01	Jewish Museum Berlin, Expansion/ 베를린 유대인뮤지엄 확장, 1989-2001, Daniel Libeskind(1946-)
	GM-02	Mé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유럽 유대인 학살추모관, 1998-2005, Peter Eisenman (1932-)
미국	US-01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미국 유대인학살추모뮤지엄, 1985-93, James Ingo Freed (1930-2005)
	US-02	Contemporary Jewish Museum,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컨템퍼러리 유대인뮤지엄, 2008, Daniel Libeskind (1946-)
	US-03	LA Museum of the Holocaust/ LA 유대인뮤지엄, 2010, Hagy Belzberg Architects

5) 서수경, 뮤지엄의 감성적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7, pp.62-129

2.3. 분석기준

3장에서 분석될 대상작품의 분석기준은 각 작품의 개념적 특성을 비롯하여 전시공간구성·전시내용과 연출·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조형특성으로 하여 건축가가 구축한 조형적 표현특성을 분석한다.

(1) 전시공간구성 : 일반적 뮤지엄의 전시공간구성이 아닌 유대인 뮤지엄만의 조형적 전시공간구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개념

(2) 전시내용과 연출 : 유대인 뮤지엄만의 특성적인 전시내용과 연출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개념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 전시환경의 특성과 조형적 표현특성을 조성하기 위한 특수한 채광형식 분석개념

(4) 조형특성 : 테러의 현상이었던 포로수용소 내 대학살의 참혹한 광경을 재현하려는 감성적 의도를 느끼게 하는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개념

3.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 대상사례 특성 분석·종합

3.1. 프랑스의 사례 특성 분석

<표 2> 프랑스의 사례 특성 분석표

	■ FR-01 M'émorial du Martyr Juif Inconnu, Paris / 파리 무명유대인순교자기념관, 1956, Perritz & Gobberg	■ FR-02 M'émorial de la Déportation, Paris / 파리 재탈 유대인학살기념관, 1962, Georges-Henri Pingusson
분석대상 이미지 및 도면
(0) 건립배경 및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배경은 ①유대인 학살에 대한 추모 ②역사적 자료의 제공 ③후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 파리의 무명(無名)유대인 순교자기념관은 600만 명의 순교자를 위한 위령(慰靈)건축과 마당의 위령탑(상징탑)이 놓인 단순한 배치형식으로 헌납금에 의해 건립 · 설계자들 자신이 강제 수용되었거나 전쟁포로였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형적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 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학살된 2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세느강의 씨테섬(Ile de la Cité) 끝자락 노트르담사원 뒷면에 위치한 지하 구조물 · 썬큰(sunken) 된 지하광장에 위령비 격인 추상조각이 맞은편 코너 거친 콘크리트 벽에 위치하고, 그 반대편 좁은 문이 지하전시관 입구가 됨
(1) 전시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 전체의 지하공간을 '추모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거기에는 단순히 24시간 타오르는 '햇불'만을 두어, 상징적 표현방법을 선택했음. · 전시기능은 기념관 3·4 층에 꾸밈이 없는 단순한 자료의 진열방식이 오히려 역사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정문을 통하여 진입하면 지하전시관의 전실인 진입홀에 도달 · 진입홀에 면한 전시관은 철책 문으로 막힌 개구부를 통하여만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하공간으로 조성
(2) 전시내용과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층 전시공간은 역사적 자료를 보편적으로 전시한 방법이나, 1층에서 지하의 추모공간에 이르는 과정에 '희생자의 명패'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헌납자의 명단'이 시각적 요소로 작용 · 지하 '추모공간'의 햇불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잔인함이 없길 바라는 설득력 있는 엄숙한 분위기로 600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감성적 전시기법 · 이러한 전시기법은 30년 후에 건립된 워싱턴의 US Holocaust Memorial 뮤지엄에서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에서 학살된 20만 명을 상징하는 20만개의 점등(點燈)을 복도 양 측에 도열시킨 단순한 전시이지만 철책을 통하여 보이게 한 감정이입식의 전시연출 기법이 매우 호소력 있게 처리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추모의 공간이 상징적 '햇불' 위에 600만 희생자를 상징하고 유대인의 상징인 '육각별'모양의 천창이 자연광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창 처리
(4)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창의 기념관 외벽에 600만 희생자를 상징하는 '육각별'과 전시관 앞뜰에 놓인 가스통 모양의 '원통형 상징물' 그리고 대문과 담장을 과거의 수용소의 감옥 창살을 재현시킴으로서 위령의 상징성이 조형의 기본이 된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큰(sunken)된 지하광장 처리로 건축적 조형특성은 없으나, 진입부 맞은 벽에 초점을 맞추어 과녁(target) 처럼 설치된 상징물이 기념관의 조형특성을 호소력 있게 나타냄

3.2. 독일의 사례 특성 분석

<표 3> 독일의 사례 특성 분석표

	■ GM-01 Jewish Museum Berlin, Expansion / 베를린 유대인뮤지엄 확장, 1989-2001, Daniel Libeskind(1946-)		■ GM-02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 유럽 유대인 학살추모관, 1998-2005, Peter Eisenman(1932-)	
분석대상 이미지 및 도면
(0) 건립배경 및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년 베를린 유대인 뮤지엄 건립을 위한 ‘유대인뮤지엄협의회’가 발족된 데서 시작 새로 확장된 유대인 뮤지엄 명칭을 ‘선(線)사이에서’ 라고 명명했듯이 사고·조직·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건립 (본관과 분리된 별동 처리) 배치개념은 ‘다윗의 별’ (Star of David) 의 문장(emblem)과 유사한 불규칙한 ‘매트릭스 형상’으로 보이는 선형 배치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통독이후 옛 수도인 베를린에 새로운 기념비적 건축들을 건설하는 중, 많은 문화시설과 더불어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 유대인에게 잔인했던 역사가 이 기념비 겸 추모관의 건립 배경임. 유럽에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위로하기 위해 베를린 중심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 넓은 광장에 2,711개의 묘석(墓石)을 배치하여 참상을 느끼게 한 의도 	
(1) 전시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그재그로 꺾어진 전시공간과 옥외의 ‘대학살 탑’ (Holocaust tower) 그리고 ‘망명과 이주의 정원’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짐 경사진 바닥과 둔각과 예각의 벽으로 구축된 미로형식의 공간구성으로 인해 동선이 복잡하게 얽혀진 자체가 일반 뮤지엄 전시공간과 구분된 감성적 표현으로 지그재그 창들이 유대인이 당한 고통의 상처처럼 느껴짐 14개의 상설전시공간이 각기 유대교의 초기 가르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2천 년간의 재독일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는데, 좁고 긴 계단으로 오른 후 내려오는 방향으로 관람하도록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위에 줄지어선 직사각 구조물 (묘석 크기 : 폭 0.95×길이2.375m)은 높이가 0에서 4m 사이로 다양한 크기의 콘크리트 브럭 2,711개가 상부 레벨은 일정하되 바닥은 지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엄격한 격자를 이룸 묘석과 묘석 사이 간격은 0.9m로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으며, 그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게 함 지하전시실 진출입은 묘석과 묘석 사이의 그리드 사방에서 이루어짐 	
(2) 전시내용과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질서한 지그재그가 무한히 계속되는 선과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베를린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합시킨 전시내용을 강하게 전달 외부 정원에 독립된 ‘대학살 탑’과 ‘망명과 이주의 정원’이 내부와 직접 연결된 특수전시기법 금속마감의 외부 재료와 좁고 긴 창들이 독일의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고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 유대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점이 새로운 규범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인 추모비 체형으로 역사적 기억이 전달되며, 예술적 가치로 승화된 독일의 속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게 한 연출 지하광장의 사료관에는 유럽 곳곳에서 자행한 만행을 고발한 각종 사진자료들이 전시됨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창과 측창이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전시공간 내 다양한 감성을 자극하며, 시간성을 부여하여 역사의 흐름을 부각하는 내부공간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시시설로서 자연적인 채광 효과로 시간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음. 단, 그림자들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체험 	
(4)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관과 분리되어 있으나 지하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지난 역사의 흐름을 거쳐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는 역할 지그재그로 꺾어진 몸체에 금속판재를 날카롭게 도려낸 듯한 불규칙한 패턴들은 내부로 빛을 유입시키는 창호인 동시에 아픔과 치유를 동시에 표현하는 역할 함. ‘대학살 탑’의 경우 내외부가 콘크리트 마감이나, 수직으로 좁고 길게 찢어진 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 효과가 기념비적 공간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크기의 단순한 묘석의 배열과도 같으나, 하나의 체계로 보이면서 그 속에 내재된 불안정성과 시간 속에 소멸된 가능성의 조형을 보여줌 	

3.3. 미국의 사례 특성 분석

<표 4> 미국의 사례 특성 분석표-1

	■ US-01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미국 유대인학살추모뮤지엄, 1985-93, James Ingo Freed (1930-2005)		■ US-02 Contemporary Jewish Museum, San Francisco / 샌프란시스코 컨템퍼러리 유대인뮤지엄, 2008, Daniel Libeskind (1946-)	
분석대상 이미지 및 도면
(0) 건립배경 및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보고서에 의하면 ①대학살의 특징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도덕적 만행을 내용으로 하고 ②대학살을 연구함으로써 20세기에 있었던 특별한 정신병에 대하여 현대인을 은유할 수 있길 희망을 위하여 건립됨 · 1980년 천만 명 이상의 시민과 크리스천 그리고 학살 희생자 등의 개인 헌금으로 정부 땅에 건립 · 최종안을 위해 설계자가 실제로 ‘테러의 현장’을 방문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설계에 반영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 학살 관련 자료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유대인의 문화·예술·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관광객과 유대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새로운 뮤지엄을 건립 · 옛 Power Station 건물에 Libeskind 고유의 혁신적인 매스가 겹쳐 이루어진 증개축 건축 	
(1) 전시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대공간을 중심으로 개별 전시실들이 둘레에 배치되고, 6백만 희생자를 상징하는 6각형의 “희상의 홀”이 과거의 슬픔을 회상케 한 엄숙한 대표적 공간 · “테러의 현장”에서 응용된 다리(bridge)와 철골재료, 그리고 벽돌이 디자인 요소를 이룸. 다리는 최상부 대공간을 건너지르고, 강철과 벽돌은 내외부 공간에 인용되어 과거의 분위기를 재현시킨 듯함 ·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소나 공간을 재현시키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이중성을 대상으로 한 암흑과 빛·투명과 불투명성·개방과 폐쇄성을 느끼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후 2개 층이 오픈 된 대공간에 도달하게 되며, 주 전시공간은 1·2층 갤러리와 특별이벤트 갤러리로 구분 · 기존 건축에 혁신적인 증축건축으로 인해 혼합된 이질적인 전시공간이 이색적인 체험을 만들어 냄. · 기존의 전력공급시설, 즉 파워스테이션으로 사용되었던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천장을 통해 고난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출발로 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선과 공간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2) 전시내용과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 학살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기록사진을 전시 · 개별 실은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대학살을 경험시키는 생생한 체험의 장으로서의 의도가 감함. 예를 들면 “다니엘 이야기”가 음향효과와 더불어 연출되어 어린이를 회상하게 하고, 지하층의 “희상의 벽”에는 타일 위에 각기 그림으로 전시효과를 냄 · 외부 대기 형식부터 내부 진입, 수직이동을 시키는 형식등 모든 것이 철저히 연출되어 관람자들이 자신이 유대인으로 학살현장에 있는 경험을 하도록 연출되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운드와 행위예술에 관련 전시가 이루어짐 · 동일 건축가의 베를린 유대인 뮤지엄에서와 같이 공간의 형태 자체가 감성적 전시로 전달되고,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전시공간들에 기획된 전시물들은 비교적 휴먼스케일에 기준하여 전시물들이 위치함으로써 대공간의 자율적인 형식과 대비되어 관람자들에게 집중도를 높이도록 설계됨. · 전시품을 감상할 뿐 아니라 미술아카데미에 참가하여 미술교육이나 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간 전체가 천창을 도입했고, 특히 “희상의 홀”은 중앙의 천창이 6각형이어서 6백만 명의 희생자를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증축된 경사 벽과 천창을 통해 자연광 도입 · 자연채광을 통한 공간의 4차원적 표현이 두드러짐 	
(4)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치의 잔학상과 그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강철과 벽돌을 사용하여 “테러의 현장”, 즉 유대인 수용소의 환경을 재현한 듯한 구조물들과 다양한 공간 높이와 넓이로 인하여, 긴장과 완화를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조형적 특성을 가짐 · 공간 하나하나가 연출되어 전시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닌 공간으로 체험되는 경험을 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고전적 건축에 융솟음치는 웅장한 빛나는 청색큐브가 극단적인 신·구의 역사적 결합을 강조한 조형특성 · 21세기 유대인의 가치와 전통에 대한 탐구로, 전통과 혁신을 통합한 조형의 구현 	

<표 5> 미국의 사례특성 분석표-2

■ US-03 LA Museum of the Holocaust / LA 유대인뮤지엄, 2010, Hagy Belzberg Architects				
분석대상 이미지 및 도면
(0) 건립배경 및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1년 설립된 LA 유대인 뮤지엄은 유대인의 죽음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공원 지하에 건립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되도록 간소한 재료를 사용하여, 장엄하고 강력한 느낌만을 연출 			
(1) 전시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지상에는 입구뿐이고, 지하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기 위한 전시공간 구성 외부에는 나치시대에 학살을 당한 120만 명의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벽 설치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유대인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수용소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실감나게 한 공포분위기의 공간구성 특히 첫 번째 전시공간이 'The world that was'란 주제로 유대인수용소를 연상케 함 			
(2) 전시내용과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로 내려갈수록 경사진 지붕이 관람객을 압도하면서 대학살이 이루어진 장소도 재현 되어있고,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함 추모 벽에는 120만개의 각기 다른 구멍이 뚫려있음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에 위치하여 절제된 천창으로 자연광 도입 			
(4) 조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화 된 뮤지엄 지붕 상부를 지그재그로 된 콘크리트 문양이 지하의 구조물이 있음을 암시함 			

3.4. 대상사례 특성 종합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 대상사례 특성 분석 종합은 <표 6>과 같다.

<표 6>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 대상사례 특성분석·종합

코 드 별	(1) 전시공간 구성			(2) 전시내용과 연출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4) 조형특성		
	추모공간	육각형도입	육외전시	햇불도입	점등도입	상징벽설치	천창	측창	무창	지하건축화	육각형도입	테러현장재현
□ FR-01	●	●	●	●		●	●			●	●	●
□ FR-02	●		●		●				●	●		●
□ GM-01			●				●	●		●		●
□ GM-02			●						●	●		
□ US-01	●	●		●		●	●					●
□ US-02	●						●	●				
□ US-03			●			●	●			●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의 분석특성 종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공간구성 : 지하에 ‘추모 공간’형식으로 조성된 사례가 과반이상이고, 6백만 희생자를 상징하는 6각형 구성이 특징적이며, 실내 전시공간 외에 옥외 전시관련 시설과 연계된 구성이 일반 뮤지엄과 차별성을 갖는다.

(2) 전시내용과 연출 : 추모공간에 24시간 타오르는 횃불을 도입하기도 하고, 희생자의 수대로 점등형식을 취하거나 추모 벽에 조형요소를 추가해 상징성을 만들어 표현하는 전시 연출이 특징이다.

(3) 자연광 도입을 위한 채광 : 추모공간에 6백만 희생자 또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천창이 ‘육각별’모양이거나 ‘6각형 박공지붕’으로 자연광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지그재그로 설치된 천창과 측창이 감성적 내부공간을 조성한다.

(4) 조형특성 : ‘테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재현함으로써 참혹한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키려는 조형의도가 대부분이다.

4. 결론

다른 뮤지엄과 달리 지극히 감성적 전시내용과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유대인관련 뮤지엄들을 고찰해 봄으로서 주제가 있는 뮤지엄 설계 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이 강제 수용되었던 기억과 체험을 직접 표현하거나 전쟁포로로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간접경험을 위해 보존된 수용소에 수차례 탐방하며 그 감성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 보였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주제에 집착하지 않는 일반적인 뮤지엄의 전시공간구성과는 달리 유대인의 역사와 나치에 의한 학살을 주제로 한 뮤지엄 전시공간의 조형적 표현 특성분석을 통하여 착안된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참혹한 역사를 회고하고 참회하며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을 후대에 알리는 목적으로 지어진 유대인 뮤지엄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기리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어졌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개인들의 헌납금에 의해 대부분 건립되었다. 유대인의 역사가 결코 어두운 과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가 배워야 할 큰 교육적 역할의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건축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제가 분명한 뮤지엄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의 의지와 투자에 의하여 건립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둘째, 건립된 유대인 뮤지엄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역사적 비극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체험되게 하기 위하여,

공간의 크기, 형태, 동선계획, 재료와 색채계획, 채광형식 등을 포함한 조형적 공간구성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한다. 형태적으로는 희생된 유대인 6백만 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6각형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로 다수 사용되었다. 대학살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비인체공학적 크기의 대공간(분석대상 US-01), 방향성을 잃게 하는 전시복도들의 연계성(분석대상 GM-01), 대지의 자연적인 형태를 감안하여 긴 동선을 활용함으로써 유대인의 역사를 표현(분석대상 US-03)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암울하고 침통한 감성적 연출을 위하여 재료와 색채에 대한 선택은 조형적 공간을 체감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외관에서 주로 벽돌(분석대상 US-01, US-02) 콘크리트(분석대상 FR-01, FR-02, GM-02, US-03), 티타늄(분석대상 GM-01) 등을 활용함으로써 차가운 느낌을 부각시켰다. 또한 조형적인 메스를 부각시키기 위한 작은 단위의 디자인 요소로서 부식된 철재 재료를 반복 사용하고 창살이나 무너진 다리 등을 공간의 요소로 활용하여 옛 수용소의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조형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 중, 중요한 채광형식이나 채광의 양도 중요한데, 분석된 모든 뮤지엄들은 유대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공간들에 직접 채광을 반드시 활용하고 있었으나, 분석대상 GM-01에서는 특히 다양한 위치와 크기와 길이로 자연채광을 전시관 내부로 끌어들이므로 뮤지엄 전체의 조형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지하로 들어감으로서 어두운 역사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하게 도입을 만든 US-03역시 내부에 절제된 형식의 자연채광은 유대인들은 물론 비유대인인 관람객들에게 치유의 의미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셋째, 조형성은 곧 관람자에게 감성적 체험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육중한 공장 같은 내부공간들은 유대인 포로수용소들에서 나오는 공간성을 갖고, 연출된 전시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뮤지엄이 갖고 가려는 유대인 추모의 의미를 극대화 시킨다. 특히 ‘추모비’나 ‘위령탑’ 그리고 꺼지지 않는 횃불 등을 도입하여 유대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요소로 대부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연출기법을 시도했는데, 특히 분석대상 US-01에서는 후각을 자극하는 전시, US-03에서는 청각을 자극하는 전시요소가 조형적인 공간형태와 함께 주제가 있는 뮤지엄의 의미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FR-01이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어진 유대인 관련 뮤지엄들은 그 조형성이나 전시 연출 형식을 통해 유대인 대학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이나 그 이외의 모든 관람자들에게 유대인의 아픈 역사와 희망을 성공적으로 전달 하였다. 그러나 최근 건립되

는 유대인 뮤지엄들은 단순히 전시 뿐 아니라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즉 커뮤니티의 장소로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하고 있다. 분석대상 US-03은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를 갖추고,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과 만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체험을 통해 그리고 인간적 만남을 유도하며, 역사가 바로 옆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된 이러한 뮤지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기존의 유대인 박물관(분석대상 GM-01)이나 또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물(분석대상 US-02)에 연결되어 증축되면서 기존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조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사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표현하는 시도를 함으로서 분절과 단절이 아닌 유대인들의 사회와 연관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 역사, 문화를 후대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건립되는 많은 뮤지엄들, 특히 유대인들이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뮤지엄과 같은 전시공간들은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관이 아닌 체험을 중요한 요소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체험을 유도하고 관람자들에게 주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조형적 특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설계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적 특성도 포함이 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정리하며, 이상과 같은 유대인 뮤지엄 전시공간의 조형적 표현 특성에서 나타난 디자인 요소들은 앞으로 새로운 경향의 뮤지엄을 설계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을, 다니엘 리베스킨트 전시공간을 통해 본 조형적 내러티브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91호, 2012:04
2.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3.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건축, 현대건축사, 2002
4. 서수경, 뮤지엄의 감성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7
5. 이성훈,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8
6. 이성훈 외,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기문당, 2013
7. 정태용,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에 나타난 건축개념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91호, 2012:04
8. Weinberg & Elieli, The Holocaust Museum in Washington, 1995, Rizzoli
9. 新井重三, 博物館學講座 1권, 1978
10. 문무경 외, 유럽디자인 여행, 안 그래픽스, 2008
11. CA vol. 73, Daniel Libeskind 특집
12. 오현주, 게임캐릭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컨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논문집, 2004

[논문접수 : 2013. 10. 31]

[1차 심사 : 2013. 11. 21]

[2차 심사 : 2013. 12. 03]

[게재확정 : 2013. 12. 13]